敢不生心

감불생심이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의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진 탑전을 친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공덕 없인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어릴적부터 불심을 길러 아침나갈때 저녁들어올 때 합장하고 기도드리면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가 모셔진 사리탑

麻中之蓬

마중지봉이란 곧게 자라는 삼마밭에 함께 자라나는 쑥도 곧게 자라게 된다는 것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영향을 받아 자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도에서 단타왕자가 창을 들고 고기잡는 어부로 변장하고 헤마말라공주는 정대(頂戴) 머리카락 속에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를 숨겨 스리랑카로 전수했다.

잘 될 사람이 모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불교인의 신앙사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스리랑카

신성시 하는 성물로서 모시는 사람이 그 나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전설 때문에 왕권 투쟁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성스럽고 위대한 부처님 치아가 모셔진 성전을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는 것조차 특별한 인연 공덕을 쌓지 않은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까지 극히 제한되고 있다. 이미 사찰과 불자 가정에 모신 공덕으로 스리랑카에 가서 친견하고 종교국가 대통령으로부터 다과 접대를 받고 종정 스님까지 친견하는 불자로서 더 이상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처님 치아 사리가 봉안된 불치사 성전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불치성 장관과 두 분 종정 스님께서 이를 관리하는 데 대통령의 예방을 받는 아주 친견하기 어려운 종정 스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부처님 치아 사리탑 액자를 사찰과 불자 가정에 모시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친히 받고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 법사 방필석



티샤위제라트네 前 주한 스리랑카대사



대통령으로부터 54명 환대받고 감사함을 전하는 법사 방필석



대한불교조계종 前 원로회의 의장 밀운대종사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말와두 종정

한국 불교도인 여러분들께,

스리랑카, 캔디소재에 안치되어 있는 불치사리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교계의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는 모든 불교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 스리랑카의 대사로서 부처님의 치아사리탑 사진이 한국의 불교** 가정과 사찰에 가보(heirloom)로 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으니 매우 기쁘며 한국에서 불치사진이 사찰과 가정에 장식됨으로써 축복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보의 축복이 자연히 내려질 것임을 불교 국가의 대사로서 이 또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출품 홍보

티샤위제라트네 前 주한 스리랑카대사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가 모셔진 사리탑

신앙 사진으로 가정에 모시고 아침저녁 합장하고, 예를 갖추고 기도드리면 부처님의 가피로 좋은 영향을 받아 올바른 생각을 하게되고 산만한 감정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며 혜안이 밝아지며 살아가는 이치를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고 집안에 부처님 복이 온다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사진 촬영은 어느 누구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본인도 기회가 있어 영암 큰스님을 모시고 친견을 하였습니다. 치아사리를 모신 사리탑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당시에 친견할 수도 없고 친견 못한 한국불자를 위하여 촬영을 부탁하여 허락이 되어 촬영한 결과 국내 불자님이 모시기를 원하여 당시 촬영한 사진작가 법사 방필석으로 부터 여러 사람에게 보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불자님께서 모시어 가정에 원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前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변밀운 스님 말씀

협력 :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주관 : 한국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 법 사 방 필 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 규격 : 가로 63㎝×세로 83㎝ 재질 : 전지사진 비단표구 유리액자

문의 : 02)735-8259